

법사학 관련 신간 안내

- ◎ 한인섭, 『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: 과거청산과 제도개혁의 과제』, 한울아카데미, 1998년 5월, 367면

저자가 그 동안 발표해온 우리의 형사법제와 법현실에 대한 글을 묶은 것으로, “제1부 형사법 한 세기, 제2부 5·18재판과 과거청산의 과제, 제3부 법제도개혁과 민주사법”으로 구성되어 있다. 갑오개혁 이후 현재의 형사법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의 형사법제의 흐름과 현재의 문제를 조감할 수 있다.

- ◎ 조규창 저, 『로마刑法』, 고려대학교 출판부, 1998년 5월, 747면

현승조 저, 조규창 증보, 『로마法』(법문사, 1996)의 자매편으로 총설(제1장)에서 로마형법의 일반이론을 다룬 후 시기에 따라 王政에서 專主政(제2장~6장)까지 범죄와 형벌을 설명하고, 부록에 로마사 연표를 수록하였다. 종래 사법사 중심의 로마법 연구를 넘어선 것으로 앞으로 중국 등 동양에서의 형법의 발전과 비교 연구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 이를 계기로 로마 공법사에 대한 연구도 진작되기를 바란다.

- ◎ 막스 카저(Max Kaser)저,尹喆洪 역, 『로마法制史』, 법원사, 1998년 6월, 541면

1997년 1월 13일 서거한 금세기 최고의 로마법학자 중의 한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인 *Römischen Rechtsgeschichte*(新訂재판, 1956)를 번역한 것이다. 로마법원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로마법에 관심이 있는 초학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. 그리고 부록에서 「막스 카저의 생애와 사상」 등을 첨부하여 이해를 도왔다. 아마 1998년은 최병조 회원의 수상, 『로마刑法』의 출간 등 한국에서 로마법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해인 듯하다.

- ◎ 任大熙·金鐸敏 主編, 『譯註 唐律疏議 -各則(하)-』, 한국법제연구원, 1998년 7월, 414면

중국만이 아니라 동양삼국의 법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唐律疏議가 완역되었다. 수록된 부분은 권21 鬪訟에서 권30 斷獄이며, 마지막에 전권의 색인을 첨부하여 이용에 편리하게 하였다. 1994년에 첫 권이 발간된 후 4년만이며, 주편자들을 비롯한 20여명의 연구자들의 노고의 결산이다.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국과 한국법제사에 대한 알찬 연구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.

- ◎ 니시다 다이이찌로(西田太一郎) 지음, 천진호·임대희·전영섭 옮김, 『중국형법사』, 신서원, 1998년 9월, 334면

중국법제사의 중요 저작을 지속적으로 번역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학계에 중국법제사를 소개해온 임대희 교수가 중국형법사를 사상사적인 측면과 그 사상이 실제의 행정 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저서를 번역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법사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기대한다.

- ◎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 法制史 관련 자료 발간

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한국법제사 연구를 위하여 奎章閣資料叢書 법전편을 발간하였다.

1997년에 『經國大典』(1책; 解題 南智大[서원대학교 교수]), 『大典續錄』, 『大典後續錄』, 『經國大典註解』(이상 1책; 解題 南智大[서원대학교 교수]), 『各司受教』, 『受教輯錄』, 『新補受教輯錄』(이상 1책; 解題 具德會[카톨릭대학교 강사]), 『典錄通考』(2책; 解題 梁晉碩[규장각 특별연구원])를, 1998년에 『續大典』(1책; 해제 洪順敏[서울대학교 강사]), 『大典通編』(2책; 廉定燮[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]), 『典律通補』(2책; 해제 沈載祐[서울대학교 강사])를 해제와 함께 모두 11종 10책을 발간하였다.

갑오개혁으로 刑曹가 폐지되고 대신 설치된 法部에서 1895년 4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법부에서 기안한 공문서를 정리한 『法部起案』(전 8책; 解題 都冕會[규장각 특별연구원])을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 法部編으로 1998년에 발간하였다.

1894년부터 1907년까지 전국 각지의 관아들과 지방재판소에서 법부에 보내온 報告書·質稟書 등 각종 공문서를 법부에서 종합정리한 『司法稟報』(전 20책; 解題 愼鏞廈[서울대학교 교수])을 韓國社會史資料叢書Ⅱ로 韓國學文獻研究所와 아세아文化社에서 1988년에 이어 1997년에 완간하였다.

공간된 자료집은 한국법사, 특히 근대분야의 중요한 사료로, 기왕에 사료의 부족과 이용의 곤란으로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은 근대법사연구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. 앞으로 이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기대한다.